



〈6〉 전남 5개 군수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도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 단위 선거는 협직 프리미엄과 지역 인맥, 당내 경선 여부, 무소속과 제3지대 변수 등이 촘촘히 맞물리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각 군별로 누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경쟁 구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차례로 짚어본다.

안정이냐 변화냐… 유권자 표심 향배 ‘주목’

곡성군수

조상래 군수, 재선 도전장
민주 내부 경쟁·3지대 변수

2024년 10월 재선거를 치른 곡성군이 불과 1년 8개월여 만에 다시 군수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짧은 시간 객관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판세는 단순하지 않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재선 도전과 민주당 내부 경쟁, 여기에 제3지대 변수까지 겹치며 선거 구도는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5명이다. 재선거를 통해 군정을 맡고 있는 조상래 현 군수는 중심으로, 강대광 전 군의원과 강덕구 군의장, 이성로 군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용두 곡성·구례지역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후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이 5명이 사실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상래 군수의 최대 강점은 ‘현역 프리미엄’이다. 전 군민 버스 무료화, 군민 기본소득,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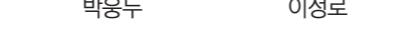
조상래



강대광



박용두



이성로

을 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지대 대표 주인공 박용두 위원장은 지난 재선거에서 30%대 중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뚜렷한 존재감을 남겼다.

곡성군수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안정 대 변화’의 구도다. 군정 성과를 앞세운 현역 프리미엄이 힘을 얻을지, 아니면 재선자 과정에서 드러났던 변화 요구가 다시 표심으로 이어질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정책 비전이 승부처… 다자구도 양상 뚜렷

장성군수

민주당내 치열한 경선
조국혁신당 후보와 본선

올해 치러질 장성군수 선거가 일찌감치 다자 구도로 재편되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선에 나서는 김한종 현 군수를 중심으로 박노원 전 장성 부군수,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소영호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사실상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준비하고 있어 선거 구도는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김한종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복지 서비스 확대, 문화·관광 자원화를 군정의 핵심 축으로 설정해 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고,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노원 전 부군수는 청와대와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혁신도시 건설 실무와 투자 유치, 지방행정 혁신 업무를 담당하며 정



김한종



김영호



박노원

보고 있다. 후보 간 경력과 인지도가 비교적 비슷한 만큼 조직력과 경선 과정에서의 메시지 관리, 핵심 공약의 차별성이 승부를 가릴 가능성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직 군수에 대한 평가와 변화 요구가 어떻게 맞물릴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후보의 득표력이 확장될 경우, 본선 구도 역시 다시 경쟁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성=이형범 기자 hnnews1@gwangnam.co.kr

민주당 수성 시험대… 현안 해결법 제시 ‘쟁점’

영광군수

민주당내 다자 경선 관심
진보당·혁신당 재도전 변수

영광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성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광은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군수가 두 차례나 배출될 만큼 정당 구도보다 인물 경쟁이 강하게 작용해 온지

여이다. 최근 재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조국혁신당과의 치열한 3파전 끝에 가까스로 군수 자리를 지켜냈다.

장세일 현 군수는 재선 도전에 나선다. 그는 재보궐선거에서 41.08%를 득표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 됐다. 취임 이후 짧은 임기에도 국비·공모 사업 1000억원 이상 확보,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선정, 어르신 버스 무료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대표 성과로 내세운다.

민주당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 재보

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이 재도전에 나섰고, 김한군 영광군의원도 도전장을 냈다.

이동권 전 도의원은 3선 광역의원 출신으로 지역 현안에 밝고,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운다. 김한군 군의원은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온 점을 강점으로 꼽힌다.

정치 신인들도 가세했다. 김혜영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도시 재생과 관광 정책 분야에서의 활동 이력을

비탕으로 정책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근철 영광가치포럼 대표 역시 지역 정책 담론을 앞세워 당내 경선 참여를 준비 중이다.

야권의 움직임도 변수다. 진보

당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30%가 넘는 득표율로 존재감을 드러낸 이석하 영광군의원이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원식 지역위원장과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장현 전 후보가 거론된다. 이들 이 본선에 나설 경우, 지난 선거와 유사한 진보 진영 내 다자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수명 연장과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임시처

장시설 문제,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RE100 산업 단지 편입 여부 등 긴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대응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혁신당 vs 민주당… 치열한 본선 승부 예고

담양군수

정철원 현 군수에 맞서
민주 후보 대거 출마 전망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정철원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는 중진과 신예, 중앙 정치 경험을 앞세운 인사들까지 잇따라 출마 쟁배를 갖추며 다자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던 담양은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정 군수가 당선되며 정치 지형이 한 차례 혼들린 바 있다.

정 군수는 제7·8·9대 담양군의회에서 두 차례 의장을 지내고, 부의장과 운영위 원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규현 전 남도의원은 담양군의회 3선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인물로, 담양군 농민회장, 예술인협회장, 대나무 축제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농업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행보를 보여왔고,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문화자원의 산업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정철원



김정오



김종진



박종원



이재제



이일환



최경식



최화삼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4선 경력의 중량감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담양군의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농업·복지·SOC 분야에서 성과를 쌓았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도 강점을 인정받아 왔다. 다만 세대교체 요구가 커진 분위기 속에서 경륜을 넘어선 변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규현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당 소속 출마설도 흘러나온다.

이 규현은 4선 경력의 중량감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담양군의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농업·복지·SOC 분야에서 성과를 쌓았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도 강점을 인정받아 왔다. 다만 세대교체 요구가 커진 분위기 속에서 경륜을 넘어선 변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규현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당 소속 출마설도 흘러나온다.

이 규현은 4선 경력의 중량감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담양군의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농업·복지·SOC 분야에서 성과를 쌓았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도 강점을 인정받아 왔다. 다만 세대교체 요구가 커진 분위기 속에서 경륜을 넘어선 변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규현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당 소속 출마설도 흘러나온다.

이 규현은 4선 경력의 중량감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담양군의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농업·복지·SOC 분야에서 성과를 쌓았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도 강점을 인정받아 왔다. 다만 세대교체 요구가 커진 분위기 속에서 경륜을 넘어선 변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규현 전 담양군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폴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당 소속 출마설도 흘러나온다.

이 규현은 4선 경력의 중량감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담양군의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농업·복지·SOC 분야에서 성과를 쌓았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도 강점을 인정받아 왔다. 다만 세대교체 요구가 커진